

---

## 개회사

---

한국 지속 가능성 인증 포럼 "코스라"의 김의형 의장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화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단일 기준은 아니지만 공시를 위한 국제 공통의 기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고 유럽을 선두로 많은 국가들이 공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경우 대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제기준에 따른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은 잠시 동력을 잃고 주춤했습니다. 공시제도의 실행에도 경고등이 켜진 바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 경제적 아젠다들로 인해 많은 지속가능성 과제들이 담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이변과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구 공동의 노력은 지금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공시제도의 도입이 계획부터 늦어졌고 공시를 위한 모든 준비는 처음부터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하반기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도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입법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공표는 안되었으나 이미 확정된) KSSB의 공시기준을 전제로 공시의 로드맵을 준비했고 국회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내용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책임을 지고 계신분들과 공시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발제내용은 물론 토론자분들의 귀중한 의견이 도입되는 제도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코스라" 역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가치를 안겨주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